

3/7/21

설교 제목: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하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 43 장 1-34 절

(1)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3)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6)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7)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이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8)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11)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12)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척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 (13)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 (14)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 (15)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 (16)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 (17)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 (18)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 (19)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 (20)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 (21)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 (22)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 (23)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 (24)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 (25)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 (26)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 (27)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 (28)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 (29)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 (30)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 (31)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 (32)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 (33)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 (34)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테스트 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테스트 하고 이스라엘 열 두 지파가 될 그의 아들들을 테스트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긴 했지만 얼마 못가서 구해온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1)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그러자 이번에는 네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애굽 총리의 말을 전하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 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3)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뭐하러 아우가 있다는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고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아니 나무랐다가 보다는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괴로움을 그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6)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갑자기 본문은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이 일이 야곱 가족의 생사 문제를 넘어서 구속사적인 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누군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약속합니다.

비록 네째 아들이지만 온 가족을 살리려는 유다의 비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8)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야곱의 잠자던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내려 놓지 못한 베냐민을 내려 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인간적인 연민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으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11)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12)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 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아내 라헬, 라헬이 난 두 아들들 요셉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그가 집착하는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셨습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헌신적인 태도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의 과거는 부끄럽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 때 함께 했었고 그후 형제를 떠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이방인 여자 다말과 결혼시켰고 또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이 가장 어려울 때 책임과 희생 정신으로 총대를 메고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후에 야곱이 유다에게 남긴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창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통해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복의 근원인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째 아들인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 때마다 예물을 잘 활용한 인물입니다.

형 에서에게 화해를 청할 때도 형에게 예물을 가득 안겨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예물로 애굽 총리의 마음을 사 베냐민을 비롯해 시므온 그리고 아들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또한 지난 번에 무슨 영문인지 곡식 값으로 지불했으나 도로 자루 속에 있었던 돈과 이번에 구입할 곡식 값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예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15)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16)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20 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한 배 동생 베냐민이 자신의 눈 앞에 있음을 확인한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형제들은 혹시 첫 번째 곡식 값을 도로 가져온 것 때문에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가지고 온 나귀를 빼앗으려는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17)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난 번 곡식 값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19)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20)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4)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는 그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청지기의 이 말은 형제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 줍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기다렸다가 요셉이 오자 예물을 바치고 옆드려 절하였습니다.

(25)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이것으로 요셉이 꿈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자신을 끄찍이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기근 속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실까 심히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아우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타는 듯합니다.

요셉은 먼저 그를 축복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통곡합니다.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하인들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의 식탁을 각기 따로 차렸습니다.

(32)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다라 신분적인 차이와 종교적인 이유로 상을 따로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좌석이 나이 순서대로 배치된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33)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자기 식물을 오배나 주었습니다.

(34)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은 처음에는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였으나 베냐민에게 음식을 다섯 배나 주는 등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옥에 있던 시므온까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 놓지 못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테스트 하셨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테스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집착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그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빛어지는 것입니다.